



[미국미래2030] 미국 패권의 미래: 트럼프 이후 미국은 어디로? (1)

백인 민족주의 정체성 정치의 등장과 미국의 미래

손병권, 중앙대학교

I. 문제의 제기

이 글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을 전후하여 나타난 ‘백인 민족주의’ 정체성 정치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의 미래정치를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이 글은 이민문제와 관련된 미국 정체성 정치의 기원 및 등장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트럼프 후보의 등장이 가져온 백인 민족주의의 활성화를 살펴본 이후, 마지막으로 미국정치의 가까운 미래상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래에서는 미국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이념적 정의 및 민족·문화적 정의의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고, 1990년대 이후 후자의 관점에서 ‘진정한 미국인’을 파악하자는 주장이 강화되면서 2016년의 백인 민족주의 정체성 정치가 부상했다는 점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미국은 건국 이후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면서 다원주의를 토대로 발전해 온 국가였다. 그리고 19세기 이후 이러한 다원주의 원칙의 배경에는 미국이 다양한 이민자로 구성된 다인종·다문화 국가라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 개신교 서유럽계 백인 이민자 뿐만 아니라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동유럽, 북유럽, 남유럽의 카톨릭 이민자들이 증가하여, 이들 새로운 이민자가 정착하는 도시지역에서 영국계 개신교도 선이주민들과 이후 도래한 새로운 카톨릭 이민자들과의 다양한 갈등도 빚어졌다. 이후 미국 대륙횡단철도의 건설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이민이 있었고, 이후 20세기에 들어서서 아시아 각국으로부터의 이민과 1990년대 이후 남미로부터의 이민이 급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이민자 국가로서 미국은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인권, 제한정부, 자유시장 등 자유 민주주의의 제반 가치에 대한 시민의 공약을 토대로 국가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다문화국가로서 성장해 온 미국에 대해서 혈연적 주류문화를 상징하는 것은 소수인종 및 비백인 민족집단에 대한 문화적 압박으로 보일 수 있었고, 따라서 미국의 국가 정체성은 미국적 신조(the American Creed)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미국 구성원이 진정한 미국인인가의 여부는 바로 이러한 미국적 신조에 대한 공약여부로 결정되었다(Huntington 1983).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적 신조에 토대한 국가 정체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실 이러한 신조 역시 유럽계 개신교 문명의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전통과 절연되었을 경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다문화 국가는 결국 다신조적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적 신조라고 하는 것도 유럽 개신교 문화의 전통과 연결될 경우에만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적 신조라는 정치적 가치는 국가적 유대감을 유지하기에는 매우 취약한 것이라는 주장이 등장한 것이다 (Schlesinger 1998; Huntington 2004).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문명과 문화적 기반이 지원해 주지 않는 정치적 신조는 장기간 유지될 수 없고 그 자체로서 국가 정체성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었다.

이러한 주장이 점차 힘을 얻어 감에 따라서 결국 국가 정체성은 주류문화를 형성하는 ‘국민집단’(national group)에 대한 일체감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관점은 자유, 평등, 인권 등과 같은 가치나 원칙에 대한 지지나 공약은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기에는 취약한 것이며, 국가 정체성은 특정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주류집단 – 미국의 경우 서유럽계 혹은 넓게는 유럽계 백인 – 에 대한 일체감을 중심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논리는 건국 이후 미국 사회의 주류가 되어 온 유럽계 백인 중심의 기독교 문명에 뿌리를 둔 국민집단으로 유럽계 백인에 대한 일체감 여부가 결국 미국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백인, 유럽, 기독교, 좀 더 좁게는 백인, 서유럽,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일체감이 유지될 때 미국을 존속시키는 사회적 유대감(social bond)이 강화되고 국가 정체성이 진정한 토대가 구축된다는 주장이었다. 주류 국민집단을 중심으로 문화적, 혈연적인 강한 유대감을 통해서 국가가 특정한 상징과 의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공통의 존경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표피적인 원칙에 불과한 미국적 신조에 대한 지지는 언제든지 다른 종류의 가치나 원칙에 의해서 대체가 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국민집단에 대해서 강한 일체감을 보이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을 구별하여 전자가 후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논리를 만들어 내게 된다. 주류 백인에 대해 강한 일체감을 보이는 ‘진정한 미국인’과 이러한 일체감이 약한 ‘주변화된 미국인’ 사이에는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전자에 의한 후자의 차별과 배제의 노력이 경주될 수밖에 없었다(Theiss-Morse 2009; Kinder and Kam 2009). 진정한 미국인인 전자의 내집단(in-group)은 주변화된 미국인인 후자의 외집단(out-group)을 배척하게 되고, 후자는 혈연을 변경시킬 수 없는 이상 2등 시민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부단히 국민집단에 동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집단과의 투쟁을 통해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모국으로 귀환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화된 미국인인 외집단이 내집단인 유럽계 백인에 대해서 그들의 주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면에서 볼 때, 외집단인 소수인종이나 이민자들은 내집단인 백인의 문화 속에서 하위문화를 구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럴 경우 사회적 다원주의나 정치적 올바름이 들어설 자리는 사라지게 된다.

2015년 이민문제를 둘러싼 미국 주류 국민집단인 백인의 불만, 특히 저소득·저학력 백인의 불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격렬한 표현으로 반이민의 노선을 내건 트럼프 후보의 등장은 소수인종과 이민자들로 인한 백인의 주변화에 대한 불안, ‘미국의 캘리포니아화’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트럼프의 등장과 그가 표방한 ‘미국 제일주의’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등의 구호는 바로 클린턴 이후 꾸준히 추진된 민주당의 사해동포주의적 이민노선과 세계화, 그리고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한 ‘정치적 올바름’의 물결 속에서 이러한 백인들의 우려와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 후보는 이민문제를 자신의 핵심 정책공약으로 삼아 백인들의 선거동원에 성공하여 마침내 대통령의 지위에 오른 것이었다.

II. 이민문제와 백인 민족주의 정체성 정치의 기원

일반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기업부문이나 이들과 긴밀한 유대감을 지니고 있는 공화당의 주류 정치인들과는 달리, 백인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미 1990년대 이래 상당 기간 동안 이민문제에 있어서는 훨씬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거부감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미숙련 백인 노동자의 경우 남미로부터의 이주해 오는 멕시코인 등 불법이민자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누적되고 있었다. 숙련 노동의 경우 남미 이주민들이 미국의 교육받은 백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지만, 미숙련 노동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교육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남미 이민자의 유입을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이민문제에 대한 미국 백인들의 불만은 단순히 남미 이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력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에만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저소득 백인의 일자리 침식은 이에 해당하는 백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심각하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남미 이주민 노동자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미국 사회가 점점 더 미국 고유의 전통적인 가치를 상실하여 보수적인 백인들이 바라지 않는 ‘다원주의 사회’, ‘다양성의 사회’로 빠르게 바뀌어 가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Swain 2002; Gardiner 2005).

민주당의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종, 민족의 기원, 종교, 문화, 언어 등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유와 인권,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만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모두 ‘미국인’으로 파악하는 태도는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가 유지될 경우에만 미국이라는 하나의 ‘민족 국가’가 존속될 수 있다고 믿는 보수적인 백인들에게는 허구에 불과한 것이었다.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에게는 건국 시기부터 미국은 유럽과 기독교 문명을 바탕으로 앵글로 색슨 계통의 이민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나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개신교와 영어, 그리고 유럽 문명이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뿌리와 이러한 뿌리의 공유만이 미국인을 진정한 미국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본 조건이었다. 그러나 남미로부터의 급증하는 이민과 이러한 이민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용적인 민주당의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올바름’으로 인해서 보수적인 공화당 지지성향 백인이 믿어 온 이러한 미국적인 가치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인식이 백인들 사이에서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렇게 볼 때 남미 이민자의 증대는 단순히 미국의 백인들에게 인구학적 위기만으로 다가 온 것은 아니었다. 즉 단순히 남미 이민자들이 수적으로 증대하여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민자의 증대가 미국의 고유문화와 문명을 침식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2050년 즈음에는 이들 이민자들이 다수가 되고 백인이 소수가 된다는 미국 인구변동의 전망은 이러한 위기감을 더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질적인 남미계 이민의 급속한 증대로 인해 미국 내 전통적인 ‘내집단’(in-group)으로서 백인이 소수인종 혹은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망은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었다(Gardiner 2005). 따라서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이민을 제한하여 백인의 나라, 개신교 국가, 유럽 문명을 전승자로서 국가로서 미국의 국가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백인 민족주의가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III. 트럼프 후보의 등장과 백인 민족주의 정체성 정치의 재등장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남미로부터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미국의 보수적 백인 가운데에는 이민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음을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백인 사이에서, 특히 저소득·저교육 블루 칼라 백인 사이에서 반이민정서가 고조되어 가고 있기는 했으나, 이러한 반이민정서가 본격적인 백인 민족주의 정체성 운동의 형태로 정부의 이민정책에 항의하는 방식으로 분출될 수는 없었다. 이미 설명한 대로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미국 사회가 이민으로 이루어진 다원주의 사회로서 정치적 올바름은 미국의 자유주의가 사회적 다양성과 집단 간 상호존중을 위해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가치로 믿고 있었다. 반면 공화당 역시 전통적인 주류세력이 친시장, 친기업적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전문직 이민자들이나 남미로부터의 계절 노동자를 필요로 하고 있어서 남미 이민을 제한하자는 정책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다. 따라서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미국 백인 민족주의 정체성 정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기폭제가 필요했던 바, 이러한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등장이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민문제, 특히 남미 불법이민자 문제와 관련하여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극대화되어 있던 순간에 이들의 불만을 재빨리 포착하고 공화당의 주류 엘리트와는 달리 거칠고 공격적인 언어로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인물이 바로 트럼프였다. 이민문제에 불만을 지니고 있었던 보수적 백인 유권자의 불만을 기민하게 포착한 트럼프 후보의 분명한 입장은 먼저 2015년 6월 15일 그의 후보 출마연설에서부터 웅변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출마선언에서 “그들(멕시코 이민자들)은 마약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범죄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강간범(rapists)들입니다...멕시코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미 전역에서 오고 있고, 아마도...중동에서도 오고 있습니다...나는 우리 남쪽 국경에 커다란, 커다란 벽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장벽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나는 즉각적으로 오바마의 불법적 이민 행정명령을 종결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요.” 말하면서 이민문제를 바로 이슈화하여 보수적 백인 유권자의 적극적인 지지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¹

이와 같이 트럼프는 ‘마약,’ ‘범죄,’ ‘강간범’ 등 매우 극단적으로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민자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국경일대에 ‘장벽’(great wall)을 멕시코 정부의 비용으로 건설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트럼프 후보의 선거출마 연설은 이미 설명한 것처럼 이민자들과 소수인종으로 인해 미국이 빠르게 다원화되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백인들, 특히 저교육 백인들이 느끼는 주변화의 불만과 소외감을 어루만져 주면서 자신만이 이들 ‘민중’의 불안을 덜어주고 민중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아웃사이더 후보인 트럼프는 공화당 엘리트와는 달리 이민문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보수성향의 풀뿌리 유권자의 불만을 이러한 후보출마 연설을 통해서 해소해 주겠다고 언명한 것이다. 트럼프 후보는 이민문제를 통해서 미국에서 주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소외되어 가던 백인들의 불안감과 불만을 직접 자극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전개해 갔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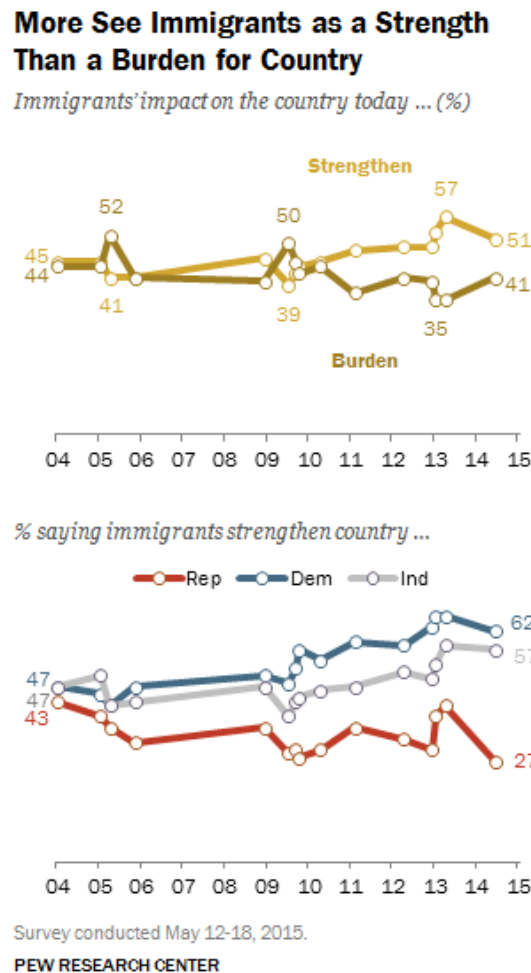
한편 다음에 제시될 일련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민문제를 자기 선거의 쟁점 이슈로 선택한

¹ 출처: 트럼프, “뉴욕시에서의 대통령 출마 선언,” 2015년 6월 15일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presidential-documents-archive-guidebook/documents-related-to-presidential-elections/2016/report/200301/all/63>

트럼프 후보의 선택이 적어도 공화당 유권자 사이에는 크게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림 1> 미국에 대한 이민의 영향력에 대한 정당 지지자별 입장



출처: <https://www.people-press.org/2015/06/04/broad-public-support-for-legal-status-for-undocumented-immigrants/>

트럼프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기 직전인 2015년 6월 4일 발표된 퓨리서치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2013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국내 유입 이민에 대한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태도가 그 이전에 비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의 경우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민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보다 1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51% 대 41%), 분기점이 되는 2013년의 긍정, 부정의 비율(57% 대 35%)은 2015년 조사 결과와는 달리 긍정적으로 본 비율이 23%나 높았다. 즉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할 즈음에는 이민을 미국에 대한 ‘부담’으로 보는 여론이 상승하는 상황이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무당파를 포함하여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로 나누어서 비교해서 볼 경우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무당파의 경우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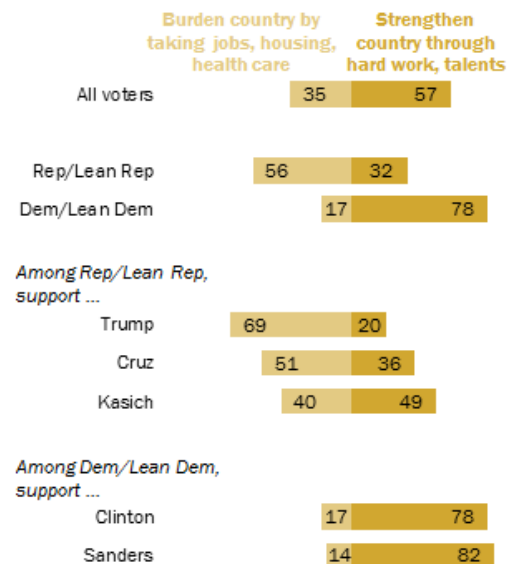
2013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민에 대한 견해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변화의 폭은 압도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컸다. 앞의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3년을 분기점으로 한 변화에서 민주당 지지자나 무당파의 경우 부정적 방향으로의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대체로 보수적 성향이 강한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 그 부정적 선회의 낙폭은 매우 뚜렷한 것이었다. 앞의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그 직전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 대강 45% 정도가 이민이 미국에 대해서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지만, 2015년 6월의 조사에서는 단지 27%만이 그럴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다시 말하자면 앞의 그림에서 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입장의 하락을 주도한 것은 무당파 유권자나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 바로 공화당 지지자였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해 보자면 이민문제 전반, 특히 불법이민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공화당의 입장을 비판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이러한 불만과 좌절이 바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이 열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Sides et. al. 2018). 그가 주장한 이민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이를 표상하는 멕시코 장벽의 건설 공약에 대해서 공화당 유권자들이 환호하고, 이와 함께 언론매체의 집중적인 보도에 힘입어 아웃사이드였던 트럼프 후보가 매우 빠른 속도로 공화당 예비선거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림 2> 미국에 대한 이민자의 기여 및 손실에 대한 트럼프 및 기타후보 지지자의 입장

Trump supporters say immigrants do more to burden than strengthen country

Which comes closer to your view?
Immigrants today ... (%)



Source: Survey conducted March 17-27, 2016. Q50c.
Don't know responses not shown. Based on registered voters.

PEW RESEARCH CENTER

출처: <https://www.people-press.org/2015/06/04/broad-public-support-for-legal-status-for-undocumented-immigrants/>

한편 앞의 그림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수적 백인들의 반이민 정서를 2016년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트럼프 후보가 가장 잘 대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을 보면 트럼프 후보는 민주

당 후보인 클린턴(Hillary Clinton)이나 샌더스(Bernie Sanders)는 물론 같은 공화당 내 후보인 크루즈(Ted Cruz)나 케이식(John Kasich)에 비해서 훨씬 더 백인의 반이민 정서를 잘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화당의 다른 두 후보인 크루즈나 케이식과 비교해 볼 때,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공화당 유권자 가운데에는 이민이 미국을 강화시키기보다는 미국의 일자리, 주거, 건강보험 등의 이익과 정부혜택을 빼앗아 미국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크루즈 후보나 케이식 후보를 지지하는 공화당 지지 및 지지성향 유권자는 각각 51%와 40%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69%의 수준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서 크루즈 후보보다도 무려 18% 이상 이러한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는 이민문제를 자신에 대한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생각했다. 트럼프 후보는 보수성향의 백인 유권자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보호정책 집요하게 전면에 내세워 공격하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클린턴 후보와 자신을 차별화면서 지지세력을 지속적으로 결집해 나갈 수 있었다.

IV. 트럼프 후보의 등장 이후 백인 정체성 정치의 활성화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예비선거에 대한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 마약의 전파자 및 강간범 등으로 비난한 것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 후보 및 지지자 그리고 각종 주류 미디어의 강력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명은 다른 한편으로는 인종주의적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포함하여 백인 민족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1990년대 이후 발달하기 시작한 인터넷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네트워크상에서 그 세력을 키우면서 서로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었던 백인 민족주의 정서의 전파자들과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출마선언과 함께 드디어 이민문제에 있어서 진정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만났다고 믿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실제로 트럼프 후보가 이들 백인 민족주의 집단이나 이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지지를 고맙게 여기거나 그 지지를 요청하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트럼프 후보가 본격적으로 공화당 예비선거에 뛰어들면서 공화당 정치 엘리트들이 감히 언급하지 못했던 이민문제의 부작용을 정면으로 공격한 것은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속에서 ‘암약’하던 백인 민족주의 세력이 자신들의 반이민 정서와 미국이 유럽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백인의 나라임을 공공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미국이 백인의 유럽적 정체성 위에 건국된 나라임을 주장하거나, 백인의 소외감이나 주변화를 적극적으로 공공연하게 언급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트럼프 후보의 이러한 강력한 반이민성 발언은 사실상 미국 정체성의 문화적, 종교적 침해를 우려하여 소셜 미디어 상에서 활동하던 백인 민족주의 세력과 그 잠재적 동조자들에게 보다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정책적, 이념적 입장을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개진할 수 있는 계기와 동기를 마련해 주었다.

트럼프가 2015년 6월 뉴욕시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선언할 당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활동하던 백인 민족주의 집단은 트럼프 후보의 반이민주의 기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로보콜, 인터넷, 이메일, 포드캐스트 등 소셜 미디어나 라디오 토크쇼 등을 통해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기도 하고, 정치행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등을 통해서 트

트럼프 후보를 후원하였다. 트럼프 후보는 인종주의 성향의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지원을 공식적으로는 거부하였으나, 이들을 단죄하면서 엄격하게 이들과 선을 긋는 행위 또한 자제하였다. 트럼프 특유의 말 바꾸기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이들의 입장을 자신의 표현을 통해서 달리 전달하면서 간접적으로 수용의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들의 입장이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이들 백인 민족주의 조직과 거리를 두기도 하면서 선거운동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들 백인 민족주의 단체들은 트럼프 후보의 태도와 상관없이 기존의 공화당 정치인과 달리 이민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사실상 백인 중심의 미국 정체성의 수호자로 등장한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였다.

이러한 백인 민족주의 세력 가운데 트럼프 후보의 백인 정체성 옹호 및 반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한 조직은 이미 트럼프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스티브 배넨(Steve Bannon)의 브라이트바트(Breitbart)가 가장 유명하다. 브라이트바트는 후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백악관 선임전략가로 활동하다가 그만둔 배넨이 2007년에 조직한 인터넷 매체이다.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배넨은 트럼프의 백인 민족주의 기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그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배넨 이외에도 1990년대부터 일반적인 백인 유권자들의 보수적 백인 민족주의 정서와 별개로 혹은 이러한 정서를 더욱 극단적으로 대변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활동한 운동가들이나 이들이 조직한 온라인 조직들은 매우 다양하다.²

대체로 강력한 보수주의 성향의 백인 민족주의 세력은 1990년대와 달리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미 언급한 배넨의 브라이트바트 이외에도 국가정책위원회(National Policy Institute)를 창설하고 이후 RadixJournal로 그 명칭을 바꾼 AlternativeRight.com의 개설자 스펜서(Robert Spencer³), Vdare.com을 운영하는 브라임로우(Peter Brimelow), 신세기재단(New Century Foundation)을 설립하고 아메리칸 르네상스(American Renaissance)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테일러(Jared Taylor), 미국자유당(American Freedom Party)의 존슨(William Johnson), 스톰프론트(Stormfront.org)를 창설한 블랙(Don Black)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존버치 사회나 패트릭 뷰캐난(Patrick Buchanan) 등이 주장한 미국의 정체성 확보 및 이민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을 수용하고, 또한 자유무역과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반대하며, 경제적 민족주의와 고립적인 외교정책으로의 회귀를 강조하는 구보수주의(paleoconservatism)의 정신을 이어받아,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미국의 백인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백인 민족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지지에 힘입어 트럼프 자신 역시 백인 민족주의 사이트에 올라온 메시지를 리트윗하거나 이들이 제공한 통계수치를 통해서 흑인들의 백인에 대한 범죄를 전달하는 등 이들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지지성명을 거부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최초 트럼프 후보의 반응은 그 이후와는 달리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리면서 그 요구를 적당히 회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만큼 백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민문제를 활용하는 트럼프와 미국의 문화적 정체성 수호와 백인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자들의 입장을 일정하게 교감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² 이와 관련된 본문의 내용은 Neiwart 2017, Heikkilä 2017 등을 참조하였다.

³ AlternativeRight.com의 창시자인 스펜서는 '대안 우파'라는 용어를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V. 백인 정체성 정치와 미래의 미국정치

트럼프 등장 이후 미국 정당 및 선거정치의 분석은 경제적 이익, 사회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서 발원하여 이민과 테러 등 외래적인 것의 위협감으로 촉발된, ‘근본적으로 미국적인 것’의 강조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대통령 선거 결과 트럼프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저소득·저교육 백인 노동자를 중심 구성원으로 하는 백인 민족주의를 미국의 전통적인 공민적 국민주의(civic nationalism)와 구별된 민족적(종족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⁴

전통적으로 미국을 정의해 왔던 ‘미국적 신조’(the American Creed) 중심의 공민적 국민주의의 담론만으로는 미국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 트럼프 등장 이후 상당한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민주주의적 제 가치에 대한 공약을 통해서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인정받는다고 하면 사실상 이는 미국이 과연 프랑스나 영국과 과연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백인 민족주의의 이러한 위력에도 불구하고 또한 미국적 신조에 대한 공약이 여전히 미국의 국민적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다.

백인 민족주의자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사회의 안정성, 동일성, 질서유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인지되는 요소들(테러, 무슬림 및 남미 이민, 그리고 일부 세계화에 의한 일자리 상실)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백인 민족주의, 권위주의, 민중주의 등의 사조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지니면서 공화당을 변화시키고 미국정치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⁵ 적어도 공화당 예비선거 과정에서는 그러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향후 의회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 의원 가운데 트럼프의 각종 유사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인물이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백인 민족주의 발흥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개혁적인 중도의 창설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백인 민족주의자들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Blair 2017). 한편 미국의 민족주의는 세계화론자들이 초래한 자업자득의 측면이 있는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Haidt. 2016). 적어도 자기 조국에 대해서 유대감을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어느 정도 정부정책이 차별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Summers 2016). 따라서 진보적 중도세력을 포함한 미국 정치세력 일반은 자신들의 추락하는 위상과 관련하여 강한 문화적 우려, 정체성 위기를 표명한 백인 유권자의 분노를 인식하고 문제를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저소득·저교육 수준 노동자들의 향방과 관련하여 향후 민주당이 적절한 대안을 내어 놓지 못할 경우 이번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여부와 상관 없이 백인 민족주의의 정체성 정치가 요구하는 안정화의 욕구와 백인의 주변화에 대한 불만은 언제든지 공화당의 포획하고 미국정치를 고립화, 우경화, 탈세계화의 방향으로 이끌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주장해 온 소수인종의 보호, 사해동포주의적 이민정책, 정치적 올바름만이 의미 있는 자유주의의 가치로 계속 주장되고, 백인의 삶과 관련된 생활정치적 이슈가 도외시되거나, 남미 불법 이민문제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 등이 없을 경우 백인 민족주의와 미국 정체성 정치의

⁴ 공민적 국민주의와 민족적 민족주의의 구별에 대해서는 Kohn 1961을 참조하기 바란다.

⁵ 트럼프 등장과 관련하여 권위주의적 유권자의 증대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어 왔는데, 일반적인 수준에서 권위주의적 유권자의 등장과 이들의 성향에 관해서는 Feldman 2003, Hetherington and Weiler 2009, Hetherington and Suhay 2011, Stenner 2005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요구는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각급 선거에 임하는 보수성향 정치인에게 유권자 동원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백인 노동자들의 생활을 위한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 정책을 강조하고, 현실적으로 이민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전략적으로 동시에 진보적인 가치에 대한 주장과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집착을 구별해 나갈 필요도 있어 보인다. ■

참고문헌

- Blair, Tony. 2017. "Tony Blair Against Populism, the Center Must Hold." *The New York Times* (March 3) <https://www.nytimes.com/2017/03/03/opinion/tony-blair-against-populism-the-center-must-hold.html>(검색일: 2019년 10월 5일)
- Feldman, Stanley. 2003. "Enforcing Social Conformity: A Theory of Authoritarianism." *Political Psychology* 24, 1
- Gardiner, Steven L. 2005. "White Nationalism Revisited: Demographic Dystopia and White Identity Politics." *Journal of Hate Studies* 4, 59
- Hacker, Jacob S. and Paul Pierson. 2019. *The Republican Devolution: Partisanship and the Decline of American Governance*. *Foreign Affairs* 98, 4 (Jul./Aug)
- Haidt, Jonathan. 2016. "When and Why Nationalism Beats Globalism." *American Interest* 12, 1 (Jul. 10) <http://www.the-american-interest.com/2016/07/10/when-and-why-nationalism-beats-globalism/>(검색일: 2019년 10월 5일)
- Hetherington, Marc. J. and Jonathan E. Weiler. 2009. *Authorization and Polarization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therington, Marc J. and Elizabeth Suhay. 2011. "Authoritarianism, Threat, and Americans' Support for the War on Terro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5, 3
- Huntington, Samuel P. 1983. *American Politics: The Promise of Disharmony*.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 Huntington, Samuel P. 2004. *Who Are We?: The Challenges to America's National Ident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Kazin, Michael. 2016. "Trump and American Populism." *Foreign Affairs* 95, 6 (Nov./Dec.)
- Kinder, Donald R. and Cindy D. Kim. 2009. *US vs Them: Ethnocentric Foundations of American Opin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ohn, Hans. 1961. *The Idea of Nationalism: A Study in Its Origins and Background*. New York: The McMillan Company
- Levitsky, Steven and Daniel Ziblatt. 2018. *How Democracies Die*. New York: Crown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박세연 역. 2018.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어크로스.
- Mansfield, Edward D., Diana C. Mutz, Devon Brackbill. 2016. Effects of the Great Recession on American Attitude Toward Trad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9, 1
- Mason, Lilliana. 2018. *Uncivil Agreement: How Politics Became Our Identit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 Neiwert, David. 2017. *Alt-America: The Rise of the Radical Right in the Age of Trump*. London and New York: Verso.
- Schlesinger, Jr., Arthur M. 1998. *The Disuniting of America: Reflections on a Multicultural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Sides, John, Michael Tesler, and Lynn Vavreck. 2018. *Identity Crisis: The 2016 Presidential Campaign and the Battle for the Meaning of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enner, Karen. 2005. *The Authoritarian Dynami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ummers, Larry. 2016. "How to Embrace Nationalism Responsibly.": Responsible Nationalism. *Washington Post* (Jul. 10)
- Swain, Carol M. 2002. *The New White Nationalism in America: Its Challenge to Integ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eiss-Morse, Elizabeth. 2009. *Who Counts as American?: The Boundaries of National Ident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pdfs.semanticscholar.org/6a84/1165b96fe3f5318bea3e15aa2438ffd5341b.pdf?_ga=2.17278137.1442197084.1570783878-1774487334.1570783878(검색일: 2019년 10월 5일)

■ **저자:** 손병권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미국 미시간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국 정치, 미국 외교정책, 비교의회 및 정당론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미국 의회정치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전형인가?: 정당정치에 포획된 미국의회』(2018), “트럼프시대 미국 민족주의 등장의 이해“ (2017)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이영현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7) ylee@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19년 12월 5일

[미국미래2030] 미국 패권의 미래: 트럼프 이후 미국은 어디로? (1)

“백인 민족주의 정체성 정치의 등장과 미국의 미래” 979-11-90315-26-5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